

제 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金陵 빛내農樂

農者天下之大本也

金陵 빛내農樂隊



▷ 일시 : 1992. 9. 23~9. 25

▷ 장소 : 구미시민운동장

경 상 북 도



조사연구 및 지도교수

성	병	희	안 동 대 학 교	교수
권	영	철	효 성 여 자 대 학 교	교수
김	덕	환	경 북 대 학 교	교수

1. 생성 배경과 유래

빗내농악은 경상북도 금릉군 개령면 광천(빗내)2리에 전승되는 전형적인 풍물놀이이다. 김천시에서 선산방향으로 12km 거리에 위치하며, 지방도에서 개령들 한쪽판을 가로질러 1.2km 들어가면 사달산 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금릉군 개령면 광천 2리 속칭 “빗내마을”에 이른다.

이마을은 김녕김씨 27호를 비롯하여 진주하씨 14호등 88가구가 모여살고 있다.



이 일대는 삼한시대의 감문국(甘文國)이었으나, 서기 231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지금도 옛 궁궐터와 성터가 남아 있으며, 군사를 동원할 때 군호(軍號)를 올렸다고 전하는 취적봉(吹笛峰)이 있다.

빗내마을은 개령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대부터 취락을 이루어 온 전형적인 농촌으로 여기서 생성된 “빗내농악”은 한국농악이 대부분 “농사굿”인데 비하여 유독 “군사굿”(진굿)으로 전승되는 것이 그 두드러진 특징이다.

빗내 마을에서는 감문국(甘文國)의 “나랏제사”와 “풍년제”가 동제(同祭) 형태로 전승되어왔다고 한다.

동제(음력 1월 6일)와 더불어 “풍물놀이”와 “줄다리기” 두가지의 진(陣)놀이가 행해진다.



빗내농악은 이때의 풍물놀이로 단순한 농사굿이 아니라 ‘빗신’(別神)과 전쟁에 유래하는 경상도 특유의 ‘진굿’(陣굿)으로 전승되어 온 농악으로 음력 1월 6일 동제에 이어 무당과 빗내마을 농악이 합쳐서 각 가정을 돌며 빗신과 밀착된 풍물놀이를 재미있게 한다.

2. 상쇠의 전승 계보

제 1 대	정	재	진	제 5 대	이	남	문
제 2 대	이	군	선	제 6 대	김	홍	엽
제 3 대	윤	상	만	제 7 대	한	기	식
제 4 대	우	윤	조				

3. 편성과 복색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놀이에 가담하나 보통 한 가구당 1명씩 동원되어 놀이패가 구성된다. 옷은 흰저고리와 흰바지에다 행전을 하고 조끼(괘자)를 입으며 홍·황·녹(紅·黃·綠)3색의 복색과 머리에는 전립과 흰꽃으로 장식된 고깔을 쓰고 있다. 쇠는 등판에 금빛 장신구가 달린 특이한 복색을 하고, 앞 이마에 꽃을 달았으며 특히 상쇠는 쇠채에 5색천을 달아 총 지휘자임을 상징하고 있다.

놀이 내용은 12가락(119마치)인 질굿, 문굿, 마당굿, 반죽굿, 도드레기, 영풍굿, 허허굿, 기러기굿, 판굿, 채굿, 진굿, 지신굿으로 구성된다.

‘빛내농악’은 순수한 경상도의 내륙농촌에서 전승된 풍물이며, 농사굿이 아닌 ‘陣굿’(진풀이)으로 12가락의 굿판이 명확한 차이를 가지면서 마치(잔가락)의 종류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농악기의 종류와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 쇠 : 4	○소 고 : 16
○ 징 : 4	○농 기 : 3
○ 북 : 8	○영 기 : 2
○장 구 : 8	○잡 색 : 3

4. 내용과 가락

12가락 119마치

1. 질 굿.....
2. 문 굿..... 3마치
3. 마 당 굿..... 4마치
4. 반 죽 굿..... 6마치
5. 도드레기..... 12마치
6. 영 풍 굿..... 28마치
7. 허 허 굿..... 12마치
8. 기러기굿..... 18마치
9. 판 굿..... 18마치
10. 채 굿..... 12마치
11. 진 굿..... 6마치
12. 지 신 굿.....

질 굿

행진하는가락으로 쇠에 맞추어 모든 풍물꾼이 덩실덩실 춤을추며 행진한다.

악보)



문 굿 풍물꾼의 내방을 알리는 신호격으로 상쇠가 입장할 때 또는 대문앞에서 “주인! 나그네 들어가요”하면서 알린다.

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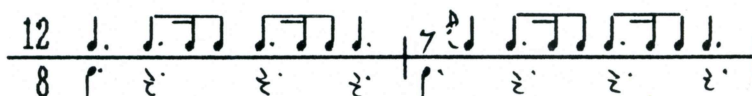


마당굿 마당에 들어서서 놀이과정(훈련) 준비로서 원형을 그리며 정열하여 쇠에 따라 전 풍물꾼이 관중에 인사한다.



반죽굿 상쇠와 종쇠의 가락에 따라 전 풍물꾼이 놀이훈련에 들어가는 가락인데 상쇠와 종쇠가 서로 이동하면서 전대원을 훈련(놀이)시킨다.

악보)



도드레기 상쇠와 종쇠가 노래에 맞추어 쇠를 치면, 전 풍물꾼은 쇠가락에 맞추어 노는 가락으로 각 배역마다 점검을 하는 격으로 모든 풍물꾼이 신명나게 뛰어 논다.

악보)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seven staves of music. Each staff begins with a '12' above the staff and an '8' below it.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such as quarter notes, eighth notes, and sixteenth notes, along with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f' and 'z'.

영풍굿

상쇠와 종쇠가 영풍대를 치면 소고는 가락에 따라 여러번 옆드려 자기의 장비가 이상이 없음을 자랑하고, 이때 쇠를 그치면 (이때 징도 치지않음)북과 장구만 신명나게 치며 자기의 장비가 이상이 없음을 과시한다.



악보) <점점 빨라지는 장단>

허허굿

상쇠가 가락을 치다가 “허허”하며 간투사를 소리 지르면 전 풍물꾼이 이상없음을 답하면서 논다.

악보)

기러기굿

이상유무를 확인한 상쇠는 흥이나서 기러기 가락을 치면 전 풍물꾼은 옆으로 뛰며, 장구, 소고는 채북을 추켜잡고 기러기 모양으로 덩실덩실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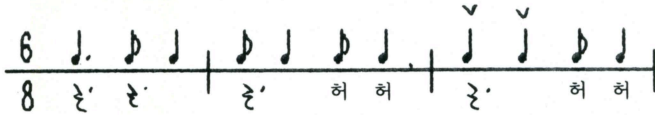
악보)

판 굿

상쇠의 지휘에 따라 원진을 풀면서 쇠와 징, 북, 장구, 소고가 각기 작은 원진을 그리면서 5방진을 친다.

이어서 전 풍물꾼이 양쪽으로 갈라선 굿판 가운데서 북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순으로 판굿을 논다.

악보)



채 굿

상쇠와 종쇠의 젓북가락에 맞추어 소고 두사람이 나와 수박(手拍)치기를 한다. 이는 맹렬한 싸움을 상징하는 놀이다.



악보)

진 곳

적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놀이로서 상쇠와 종쇠가 각각 대장이 되어 두편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격전을 벌인 후 상쇠가 진을 풀면 모든 풍물꾼은 한데 어울려서 덧배기 가락의 춤굿으로 흥청거리며 흥을 돋군다.

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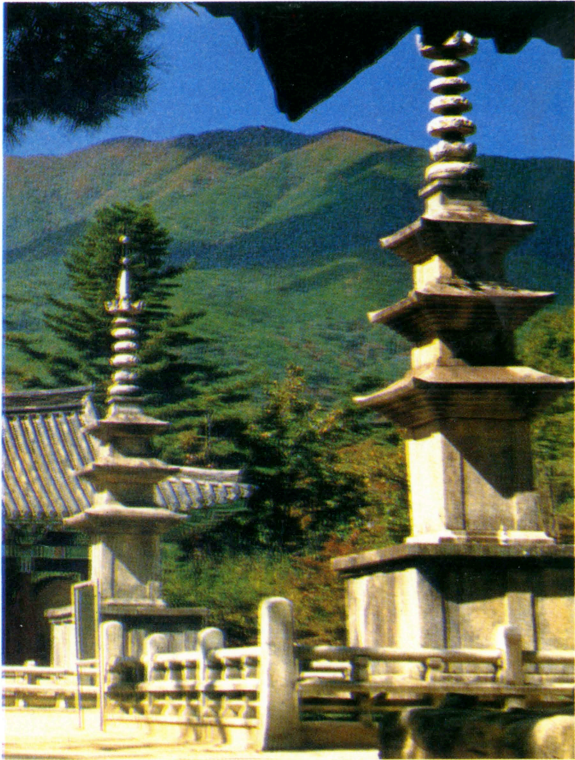
지신곳

상쇠의 인도에 따라 모든 풍물패가 한판 허드러지게 노는 마당판을 의미하며 이 곳이 끝나면 놀이(전쟁)가 끝났으므로 각기 헤어져 돌아간다.

출 연 자 명 단

역 할	성 명	성 별	나이
농 기	지 쌍 출	남	58
〃	김 점 팔	남	71
〃	김 오 길	남	58
영 기	김 용 진	남	22
〃	김 수 겸	남	21
상 최	한 기 식	남	62
종 최	손 영 만	남	28
〃	황 의 원	남	58
〃	유 영 선	남	25
수 징	김 민 식	남	69
징	조 대 도	남	57
〃	이 석 배	남	20
〃	손 민 강	남	22
수 북	이 택 영	남	71
북	김 정 길	남	59
〃	강 주 형	남	61
〃	이 기 영	남	61
〃	김 창 도	남	62
〃	김 상 배	남	71
〃	김 봉 재	남	55
〃	전 호 윤	남	26
수 장 구	이 종 택	남	72
장 구	김 오 출	남	65
〃	엄 기 봉	남	45
〃	남 필 봉	남	26
〃	박 정 철	남	21

역 할	성 명	성 별	나이
장 구	백 문 기	남	18
〃	김 영 국	남	22
〃	송 근 영	남	20
수 고	박 성 령	남	65
소 고	서 영 태	남	52
〃	김 진 근	남	27
〃	이 순 조	남	58
〃	양 재 우	남	58
〃	이 상 승	남	56
〃	이 엄 영	남	61
〃	황 수 영	남	20
〃	박 상 섭	남	25
〃	유 양 조	남	20
〃	장 병 술	남	20
〃	배 준 섭	남	20
〃	이 상 진	남	20
〃	김 무 환	남	19
〃	이 재 상	남	20
〃	전 수 호	남	18
포 수	김 용 숙	남	59
양 반	이 문 재	남	65
각 시	김 효 석	남	21
후 보	김 종 수	남	66
〃	김 백 도	남	18
〃	지 병 근	남	20



직지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 (보물 제 606호)

